

世界속의 韓國學 位置

金貞培*

序言

- I. 文化는 끝없이 변한다.
 - II. 學問의 開放性과 多文化의 力動性
 - III. 한국학의 도전정신과 국제화
- 餘言

序言

한국은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였지만 南과 北은 38선을 경계로 영토의 허리가 잘리는 아픈 역사를 안게 되었다. 이념의 충돌은 6.25전쟁으로 민족의 비극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休戰이라는 이름하에 平和가 깃들었지만 이념과 체제가 다른 南과 北의 사회는 너무나 커다란 歷史와 文化의 차이를 노증시키고 있다. 오늘의 한국은 전쟁의 파괴와 빈곤 속에서 분연히 재기하여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다 아는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재건도 일정선을 넘으면서 수출입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 세계가 주목하는 인상적인 나라가 되었다.

오늘의 한국학은 위의 사실과 동전의 앞뒤처럼 쌍벽을 이루면서 발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자 목표이고 또 당연히 그러한 정책과제가 설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금의 현상을 보게 되면 국가경제의 규모와 역할에 비해서 韓國學의 연구 규모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전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日本과 中國의 예를 보더라도 과감히 정책을 개선해야 할 당위성을 안고 있다. 한국학은 여타 국가가 그러하듯이

* 學校法人 高麗中央學院 理事長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상징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세계로 한국을 알리는 유일한 학문이다. 오늘의 한국학은 국력에 비례하여 연구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가? 세계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화의 길목에서 한국학은 주변국과 비교하여 연구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연구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한국과 해외학자들간에 연구 협력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논의 발상과 실천덕목은 기본적으로 세계 歷史와 文化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십분 인지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지녀야 접근이 가능한 논점이 된다. 본인의 발표요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할 때 세계를 향한 모든 분야의 開放性만이 韓國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라는 사실을 적시하려는데 본래의 뜻을 두고 있다. 이 사실은 南과 北을 보는 시각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I. 文化는 끝없이 변한다.

우리는 찬란했던 歷史와 文化를 예찬하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순간 순간이 있다. 이집트나 희랍, 로마의 거대한 석축물을 보면서 인간이 만든 조형미에 탄성을 자아내고 文明의 속성을 탐구하면서도 예술의 혼에 빠져들곤 한다.

한국의 모습을 표현하는 미술에는 종종 옛날의 자그마한 초가집과 소가 밭을 가는 다소 한가한 풍경이 등장하고 졸졸 흐르는 냇물의 정경도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이 평화로운 모습이 자신의 성장과 생활경험이 어우러진 현실이거나 추억이었다고 믿고 이러한 분위기를 동경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19세기에 서양인이 한국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표현한 이 글귀를 지나치게 남용하다는 느낌이 들곤한다. 한 시기, 한 시대를 표현한 그림이겠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 멀어져간 과거의 문화유산으로 기억되는 생활의 기록일 뿐이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처럼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발전하면서 문화의 변화 변질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文化가 빠르게 변화한다는 현실을 때때로 망각하고 과거의 문화에 안주하려는 의식에 경도되는 경향도 있다.

文化는 변한다. 한국사에서 보면 무속신앙이 있었지만 불교사상이 들어왔고 유학이 전성기를 맞았는가 하면 천주교, 기독교 사상

이 뒤이어 들어왔다. 따라서 각각의 특징있는 문화가 이 땅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일찍이 슈펜글러(Splengler)는 ‘서구의 몰락’에서 文明의 순환론을 들어 모든 문명은 生·老·病·死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영원한 제국이 없고 영원한 권좌도 없으며 오대양·육대주에 유니온 잭(Union Jack)이 내려진 적이 없었던 영국의 막강한 국력도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세력의 중심이 옮겨 갔다. 文化는 본질적으로 끝없이 변화 변모해야 생명력을 유지하고 한 단계 높은 문화로 도약을 한다. 만약에 문화가 기존의 틀에서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이 현상 자체가 폐쇄성을 띄게 되므로 자연 고사의 단계로 진입한다. 새로운 문화요소를 수용하면서 변화를 도모하면 한층 건강한 문화를 유지하던가 도약하여 창의적인 문화를 이루게 된다.

한국학은 한국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아야 하지만 해외의 다양한 문화 위에서 이룩한 학술업적이 교류되어야 건강한 체질의 한국학으로 성장하게 된다. 반대로 해외 한국학 연구는 한국에서의 학술업적도 비교 검토해서 연구에 접목시켜야 격조 높은 업적을 이룩할 수 있다. 무릇 자신만의 연구업적에 도취되어 학계의 다양한 연구경향과 업적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러한 한국학은 생명력이 다한 죽은 한국학의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한국학은 문화가 변하듯이 한국학의 참된 내용이 변화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이 올라서야 건실한 학문체질을 유지할 수 있다. 끝없이 한국학의 내용을 변모시키는 도전정신이 한국학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다.

II. 學問의 開放性과 多文化의 力動性

학문과 기술에서 개방을 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학문을 한층 더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뜻한다. 역사에서 개방을 택한 국가는 융성한 국력을 내외에 과시하지만 폐쇄적인 나라는 국력이 신장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지나간 역사가 좋은 본보기를 제공한다. 한국사에서 개방에 성공한 나라가 신라역사이고 폐쇄적인 나라가 조선왕조이다. 신라가 千年의 歷史를 지속하였다는 내면에는 당시 최고의 학문과 사상인 불교 연구의 단면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신라에서 왕성한 불교연구가 높은 경지에 올라선 것은 元曉의 『大乘起信論疏』가 海東疏로 중국의 佛敎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데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唐나라에 求法僧으로

가서 많은 연구를 한 스님들 가운데 慧超는 단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오늘날에도 교통이 발달하였지만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각지를 두루두루 답사한다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다. 慧超는 天竺國과 중앙아시아를 답사한 후 長安에 돌아와 불후의 명작인 여행기록 ‘往五天竺國傳’을 남겼다. 치열한 불법구도의 탐구노력이 그의 기록에서 보이거니와 구도에 나선 혜초도 때로는 고국이자 고향인 新羅 慶州를 그리워하며 旅路의 심정을 다음의 詩로 나타내고 있다.

月夜瞻鄉路 浮雲颯颯歸 緘書忝去使 風急不聽廻
我國天岸北 他邦地角西 日南無有雁 誰爲向林飛

달밝은 밤 고향길을 바라보니
뜨구름 너울너울 돌아가네
그 편에 편지 한 장 붙여 보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 화답이 안들리는구나
내 나라는 하늘가 북쪽에 있고
남의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日南에는 기러기 마저 없으니
누가 내 고향 계림으로 소식을 전할까.

만난을 무릅쓰고 구법길에 나선 慧超스님도 南天竺國을 지나면서 신라 경주를 향한 망향의 심경을 토로하며 인간적 일상의 감회를 토로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신라사회가 개방적인 학문의 열정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국력의 신장으로 연결되었다. 유명한 海上王 張保臯가 山東省에 法華院을 만든 활양상은 다 아는 바와 같거니와 日本僧 圓仁이 신라인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唐에 들어가 法華院에서 유숙했던 사실은 이 시기 신라의 폭넓은 국제 교류가 왕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예가 된다. 圓仁은 日本으로 귀국해서 唐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入唐求法巡禮行記’라는 유명한 저서를 출간하였다. 4권을 통해 볼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반이 唐나라나 日本人이 아니고 신라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唐에서 공부한 崔致遠이 신라사회에서 최고의 문장가였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하는 관점이다. 신라의 王陵에 아랍계통의 石像이서 있고 高句麗의 壁畵무덤에 고구려인과 씨름하는 아랍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모두는 국제교류가 우리가 생각하였던 사실보다 훨씬 활발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반면에 조선왕조의 대외창구는

오직 淸나라 뿐이었고 燕行使를 통해 새로운 淸의 문물을 수용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한 『하멜(Hamel) 표류기』에서 보듯 폐쇄적인 한국사회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지난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는 활성화를 잃고 있었다. 격변하는 19세기에 조선 왕조는 세계의 움직임을 직접 소화하는 능력부재로 국권상실의 아픈 역사를 체험하였다. 이것은 역사의 폐쇄성이 국가존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본보기이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교육과 취업, 그리고 각종 商社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多人種사회가 되었으며 따라서 多文化가 넓게 퍼져있다. 지난날 한국경제 규모가 크지 않던 시기에도 한국학을 좋아하는 학자가 나타나서 그 나라에서 한국학이 시작되거나, 또는 특정대학에서 한국학이 개설된 연유로 인해 한국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곤 하였다. 지금 한국은 多人種, 多文化 단계에 진입해 있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多文化 사회의 특징은 다양성과 역동성이 본질이다. 한국학이 빠르게 국제화로 더 활발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多文化사회의 기반을 착실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국가브랜드의 가장 적합한 분야가 바로 한국학이며 근년에 세계 구석구석에서 목도되는 소위 ‘韓流’도 한국학의 한 분야라는 관점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Ⅲ. 한국학의 도전정신과 국제화

필자는 韓國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비교적 광의로 해석을 하는 입장에 있다. 지난날 文, 史, 哲 위주의 한국학이 기본이었지만 앞에서 본 관점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社會科學 분야도 한국에 관한 것이면 韓國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서 古典이 강조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社會科學 방면의 학문이 왕성한 대학도 있다. 한국사회가 多人種, 多文化 사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지만 그 반대로 韓國人의 海外移住도 19세기 이래 계속 증가하였다. 근년에 한국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종래보다 한국인의 해외이주나 여행이 크게 증가하였다. 소위 ‘디아스포라’가 학문의 연구대상이 되면서 한국학의 새로운 地平이 열리고 있다. 사실 한국학의 국제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이제

는 각기 나라마다 현지에서 교민들과 대소의 교류도 한국학의 발전에 자극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교류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대국가를 알고 이해해야 교역의 규모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 해당국가의 언어와 문화 등을 이해하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므로 한국학은 보다 도전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필자는 학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곤 한다. 확실하게 한국학의 기반을 닦은 대학이 있고, 한국학이 안정기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한국학을 개척하는 대학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한국학계와 연계되어 교류를 하는 것이 양 기관간에 도움이 되고 훌륭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일은 사람이 하는 만큼 역량이 있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도전정신을 갖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국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도 대외 학술활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분야는 물론이고 자신이 속한 학과나 대학에다 한국학의 발전에 자연 공헌을 하게 된다. 한국학계에다 자신의 역량을 십분 투입하는 도전정신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학문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반대로 한국학자도 해외의 관련 학자들에게 적극적인 학문교류를 제의해서 望外의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세계 수출경제의 선두에 서 있으므로 한국학은 이 위상에 걸맞게 한국학의 보급과 연구에 배전의 노력이 절실하다. 근년에 들어와 인터넷의 강화가 연구 진작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한국학의 학술정보가 건실하게 운영되어 전 세계의 학자들에게 자료제공의 각종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의사소통이 편리한 점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학술모임보다도 주변국들과 연계된 모임을 갖는 것이 오히려 학문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餘言

한국학은 이제 한국내에서만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하는 한국의 정체성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국가적 과업의 학문이다. 세계와 함께 연구하는 국가 브랜드 창출의 근원이 한국학이

다.

민족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가치있는 덕목의 우선 순위에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세계와 더불어 한국학을 연구할 때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文化는 변하고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 고급스러운 문화는 늘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우리가 외부세계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문화가 반대로 세계로 전파되는 경우가 있다. 地球村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 시기에 한국학은 경제력의 규모에 걸맞게 세계와 함께 연구하는 학문으로 승화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